+입법정보

세종의회소식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2020
통권 제 26 호

SEJONG CITY COUNCIL

후반기, 젊은 리더십 주목 04

행정수도 완성 촉구 성명서 발표 06

전반기 의정 성과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 인사

후반기 의정방향의 큰 틀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본 틀 안에서 세종시 경제산업과 보건복지, 문화체육예술, 환경과 안전, 교육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수립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종시에 안착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들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의회의 업적에 비춰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발전을 위해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와 바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전문성과 경험, 소통과 연구하는 자세를 두루 갖춘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합의제를 전제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열린 의회와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을 지향해 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되,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해 나가면서 대화와 토론,
타협의 민주적인 과정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후반기 의정방향의 큰 틀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본 틀 안에서 세종시 경제산업과 보건복지, 문화체육예술, 환경과 안전, 교육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수립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종시에 안착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은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2030년 도시완성 단계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미래는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10년이라는 기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세종시의 행보에 따라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후반기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배려와 헌신의 자세로 노력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시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 태 환

2020.07.01(수)
14:46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재적 18
출석 18
의 사 일 정
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14:46
의회
의 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 현 우
임 채 성

CONTENTS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26호

의정포커스 4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역대 최연소
후반기 이태환 의장

의원 인터뷰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의원

의정뉴스 14

5분 자유발언 20

시정 질문 26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31
행정복지위원회 32
산업건설위원회 34
교육안전위원회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8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39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40

연구 모임 41

의원 생각함 44

주요 안건 처리 현황 48

전반기 의장 칼럼 56

(북인북)입법정보 58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74

2020년 3분기 세종시의회 회기 안내 76

FOCUS 1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역대 최연소 이태환 의장 당선 '젊은 리더십' 시대 열다

노종용 제1부의장, 이윤희 제2부의장,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 당선
1일 제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일 제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신임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의장 후보자 중 유일하게 정견 발표에 나선 이태환 의원은 "의장에 당선되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꼼꼼히 마련해서 시민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외적으로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역대 최연소 '30대 의장', 젊은 리더십 시대 열다

이날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총 18표 중 17표를 득표한 이태환 의원이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태환 신임 의장은 '만 34세'로 세종시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 기록을 갖게 됐다.

이어, 노종용 의원과 이윤희 의원이 각각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에 당선됨에 따라 신임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 유철규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 박성수 의원이 교육안전위원장, 김원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세종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직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변화 의지' 돋보인 후반기 원 구성 결과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노종용 제1부의장과 이윤희 제2부의장 등 한층 '젊은 의회'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세종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변화와 쇄신'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태환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후반기 의정방향의 큰 틀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중 · 장기적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노종용 · 이윤희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역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한 협력'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의 오는 8월 26일부터 15일간 후반기 첫 회기인 제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 태 환

제1부의장 **노 종 용**

제2부의장 **이 윤 희**

의회운영위원장 **김 원 식**

교육안전위원장 **박 성 수**

행정복지위원장 **유 철 규**

산업건설위원장 **임 채 성**

표1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결과

의장단	의회운영 위원회	행정복지 위원회	산업건설 위원회	교육안전 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년 임기)	윤리특별 위원회 (*1년 임기)
이태환 의장	김원식 위원장	유철규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	박성수 위원장	손현옥 김원식 박성수 상병헌 안찬영 이순열 이윤희 이재현 유철규	손인수 노종용 박용희 서금택 이영세 임채성 차성호 채평석
	노종용 부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		
노종용 제1부의장	이윤희 손인수 차성호	이영세 이재현 노종용 이윤희	손현옥 서금택 상병헌 채평석	안찬영 이순열 박용희		
이윤희 제2부의장						

FOCUS 2

“국가균형발전 위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통해 이제 결단 내려야 할 때”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세종시의회 공식 성명서 발표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행정수도 완성’ 발언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반감됐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라면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21대 국회 첫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내용이 담긴 데 대해 35만 세종시민을 대표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초당적 논의 본격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 통과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성명서 발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의 첫 연설에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담은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혁신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명 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1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종시의회는 이 같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라며, 정부 역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통해 지방 소멸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이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잇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인식 대전환을 국민들에게 공식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 또한 남다를 것이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연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식화하고,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초당적 논의에 나서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국회와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개헌에 관한 초당적 논의를 본격화하라!

하나.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약속하며, 필요하다면 소통과 논의의 장에 언제나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20년 7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FOCUS 3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최대 규모 이전" 주장 나와

14일 세종시의회 의원들 토론회 참석차 국회 방문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토론회서 나온 의견, 실제 추진안에 담겨지길 기대"

세종시 주관으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낙연 의원과 이상민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등 지역구 의원은 물론,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노종용, 이윤희 부의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국회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기업 지방 이전 등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국회세종의사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주목 받았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규모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일부 상임위원회 기능을 옮기겠다는 기존안보다 확장된 개념의 추진방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경제효과가 7,550억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와 고용, 임금 유발 효과로 인해 지역에 7,550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보다 확장된 개념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안이 향후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FOCUS 4

주민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솔동 비대면 주민총회 개최

한솔동 첫마을 주민총회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지난 21일 열렸다. 특히 이번 한솔동 주민총회는 한솔동 첫마을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주민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솔동 첫마을방송국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솔동 주민총회에 대해 알아봤다.

▲ 한솔동 주민총회 콘텐츠

▲ 한솔동 주민총회 콘텐츠

▲ 홍성국 국회의원

▲ 안찬영 의원

첫마을의 새로운 시도 '마을방송국'

한솔동 첫마을방송국은 마을 주민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일부 주민들은 첫마을방송국 개국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미디어에 대한 전문과정을 이수하기도 했다. 약 3개월 전 개국한 첫마을방송국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는 어쿠스틱 기타와 보태니컬 아트, 캘리그라피 강의 등 온라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오디오 위주의 콘텐츠와 주민들이 직접 쓴 시를 공유하는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비대면과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주민자치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한솔동에서 새롭게 시도한 '비대면 주민총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솔동 주민들은 첫마을방송국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민총회의 실황을 생중계했다. 한솔동 비대면 주민총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만큼 이날 홍성국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이 인사말을 남기기도 했다. 먼저, 홍성국 국회의원은 "자발적으로 마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정한 다음, 행정부처에 건의사항을 올리고 해결해가는 과정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한솔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준다면, 이 도시가 민주화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첫마을 방송국이 주민자치의 실현에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한솔동이 앞으로 세종시 발전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동네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1일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2020년 한솔동 첫마을 주민총회' 콘텐츠에서는 온라인 투표 결과와 선정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5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함께 하면 된다'

세종시의회 전반기 성과

FOCUS

지난 2018년 7월 2일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는 제62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지난 7월 1일을 기점으로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진 가운데,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정 이슈와 주요 성과들을 짚어봤다.

▲ 지난해 6월 개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의 퍼포먼스 모습

▲ 세종시의회 여성 의원 3명은 지난 2월 4일에 지역 여성 경제인과 만나 지원 방안 등에 논의했다.

▲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모습

▲ 세종시의회 안찬영 전반기 부의장이 지역 방역 소독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지방의회 신뢰도를 높이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전반기 의장은 개원사에서 세종시의 내실 있는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통해 시민들의 꿈에 더욱 다가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소통과 경청, 공감과 나눔, 균형과 화합을 의정가치로 내세우고 '일 잘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2년여간 세종시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해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자료 열람과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 제공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참여연대 등 19개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1인당 발언수와 입법활동 2가지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두 가지 부문 모두 3위 안에 든 건 세종시의회가 유일하다.

의제 제시와 여론 조성 빛났다

세종시의회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해 6월 세종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에는 관계자를 포함해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인사권 독립을 통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추진한 선도

▲ 세종시의회에 걸린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정평가 3위' 플래카드 모습

▲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3월 제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작년 1월 28일 충청권 4대 시도광역의회는 공동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건의서를 채택했다.

▲ 지난 6월 23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대 세종시의회는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4개 안건을 처리했다.

사례로 평가받는다. 올해 4월 24일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최로 세종시의 숙원 사업인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패널들은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대학캠퍼스 유치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캠퍼스 유치 방식과 대학 정원 증원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등 조례 제정 간담회',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요 정치 현안에 한목소리

세종시의회는 충청권 공조를 통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1월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동 건의서에는 업무 효율성 강화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청와대 집무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충청권 4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담겼다. 또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이하 행수특위)는 지난 11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충청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시의회는 충청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예산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당시 세종시의회는 의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은 세종의사당 설치에 단계적인 이행 절차 중 하나"라며 "향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일부 기능을 세종으로 옮기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세종시의회는 원 교체 이후에도 행정수도 완성 과제와 지방자치법 개정, 세종시 특별법 등 세종시 발전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전략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후반기 원 구성 결과 의회 역사가 다시 쓰였다. 이태환 의원이 만 35세의 나이로 의장에 당선되면서 전국 광역시 · 도의회를 통틀어 역대 '최연소 의장' 기록을 갖게 됐다. 한층 젊어진 원 구성만큼 당선 인사를 통해 '변화와 쇄신'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이태환 신임 의장을 만났다.

후반기 '젊은 리더십' 시대 연 이태환 의장

후반기 **이 태 환** 의장

Q.당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먼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세종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원 구성에 힘을 모아주신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님들의 배려와 헌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전반기 의회운영의 정신과 비전을 이어가면서도,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세종시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의 전문 역량 강화와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 소통과 의견 조율의 자리를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의 성공이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Q. 후반기 의장으로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인지.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결연히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책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가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세종시의회는 시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모임 활동뿐 아니라,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의원 역량 강화와 대시민 소통 차원에서 적극 유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진 사례를 체험해봄으로써 시 주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수와 연찬회 등의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Q. 후반기 주요 현안을 꼽아 본다면.

세종시 3법 개정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정과제입니다. 세종시 특별법의 경우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며, 아울러 국회법과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와 미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의문과 성명문 형태로 세종시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국회사무처에 전달한 것은 물론, 충청권 지방의회와 연대해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충청권 국민여론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의회운영위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기자회견, 국회방문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세종시의 입장을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Q. 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부분은?

세종시는 급격하게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해나갈 도시입니다. 그런 시대상에 발맞춰 행정도 발 빠르게 변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특히 조례 제 · 개정 등 입법 권한을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안과 연관된 단체나 시민사회와 토론회는 물론, 간담회를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시민 소통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견제 활동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새로운 시도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다른 도시에서 부러워할 만한 혁신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 역시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노력한 의회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성공이 충청권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나가면서 시민주권자치특별시라는 시정 슬로건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즉각 반영되는 시민주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에 진력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항상 낮은 자세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문턱을 보다 더 낮추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자세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마음가짐으로 겸허히 시민사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WS
세종시의회는 지금

세종시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6월 24일 산업건설위 주최 이태환 의원 주관으로 청년창업농 지원 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4일 오후 2시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주최하고 이태환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청년 창업농'의 실태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도시와 농촌의 조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반으로 농업 · 농촌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청년농 정책은 지역 공동체와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민기 소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농업의 다양성을 갖추는 노력뿐 아니라, 세종시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청년 농업인으로 잘 알려진 (주)그린로드 김지용 대표와 지리산피아골식품 김미선 대표가 창업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린로드 김지용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해 상품을 출시하기까지 과정과 첫 크라우드 펀딩으로 목표치의 9배에 가까운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지리산피아골식품 김미선 대표는 "처음 시장에 진입했을 때 유통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어 2015년 미국 진출을 통해 국내 시장에 역진출한 경우"라면서 "청년 창업농들이 영농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를 많이 접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와 사례 발표자는 물론,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청년 농업인 대표 3명이 좌장을 맡은 이태환 의원의 진행으로 질의 · 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급식과 연계해 청년 농업인들의 농산물을 일정 비율 구매하는 지원책 도입 ▲로컬푸드와 연계해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방안 ▲외부 도시민들과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점 확보 대책 ▲청년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테스트 베드 형태의 공유 개념 하우스 임대 방식 등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청년 농업인들의 임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유휴지의 농지은행 등록 활성화 교육과 홍보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거론됐다.

세종시의회

‘21대 국회에 바란다’ 발표

시민 염원 깃든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5월 30일 21대 국회가 출범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직결된 ‘세종시 3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이들 법안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세종시 재정난 타개, 세종시 자치권 강화를 이끌 중요한 법적 근거로 보고 있다.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재상정과 처리가 지난 20대 국회보다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예산집행 결산검사 실시

세종시의회는 4월 3일 의장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 세종시의회 김원식(대표위원) 의원과 박용희 의원을 비롯해 문수원 회계사, 주홍진 세무사, 시정 및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인 고병학, 윤철원, 장진섭 위원 등 7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 ·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게 된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5월에 열린 제6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승인됐다.

세종시의회

농번기 맞은 복숭아 농가 찾아 '일손 돕기'

의원 및 사무처 직원 30여명 연동면 명학리서 농촌봉사활동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농번기를 맞아 복숭아 수확을 앞둔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과 손현옥 · 이순열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 30여명은 6월 26일 연동면 명학리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복숭아 봉지 씌우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6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다.

이날 참석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진행한 농가 일손 돕기가 미력하나마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농장주 채홍태 씨는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우리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 줘서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의정활동 오리엔테이션 실시

대회의실에서 시정과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 교육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순열 의원(도담동)을 대상으로 시정과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의정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날 의정활동 오리엔테이션에는 세종시의회 권영윤 사무처장을 비롯해 임동현 의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김명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영인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정섭 산업건설전문위원, 한기대 교육안전전문위원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순열 의원은 인사말에서 "동료 의원들은 물론, 사무처 직원들과도 열심히 소통하면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자세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시민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순열 의원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시와 의회 현황,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의원소식

이영세 · 유철규 · 임채성 의원 제8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수상자들 "전반기 활동 마치며 상 받게 돼 뜻깊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부의장과 유철규 · 임채성 의원이 6월 22일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제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영세 부의장과 유철규 · 임채성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 민주주의 기반 확립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세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각종 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유철규 의원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활발한 견제 활동 ▲의회운영 및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또한 임채성 의원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시의 안전과 교육 개선에 기여 ▲행정수도완성 및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이날 수상자들은 "제3대 전반기 활동을 마감하면서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는 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의원소식

안찬영 · 이태환 · 박성수 의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시민 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이어 제3대 의회 발전하는 모습 보여줘"

▲안찬영 의원

▲이태환 의원

▲박성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안찬영 · 이태환 · 박성수 의원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50인 모니터링단' 평가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총평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늦은 밤까지 적극적인 질의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한 문제점 지적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시민제보 운영 등을 높게 평가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우수의원들은 "제3대 의회 출범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2년 연속 긍정적으로 나타나 뜻깊게 생각한다"며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은 결과인 만큼 동료 의원 모두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의원소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아름동 두루뜰공원서 주민들과 환경정화운동 동참

아름동 주민자치위 주최로 두루뜰공원 산책로와 숲 놀이터에 꽃무릇 1만 6천주 심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6월 6일 아름동 소재 두루뜰공원에서 진행된 '꽃무릇(사찰에서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여러해살이 풀) 단지 조성'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꽃을 심고 환경정화운동을 벌였다.

아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 방범대 등 6개 직능단체와 두루사랑봉사단 등 자생단체 및 시민 300여명은 두루뜰공원 산책로와 숲 놀이터 주변에 꽃무릇 1만 6천주(株)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과 안신일 세종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상병헌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요즘, 주민들이 서로 꽃을 가꾸고 어울리면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행사를 준비한 윤석훈 자치위원장과 아름동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두루뜰공원 정비사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병헌 의원의 공약으로, 예산 3억원을 들여 공원 내에 산책로와 어린이놀이시설, 쉼터를 조성하고 자작나무와 편백나무 등 식물을 심는 환경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비를 완료한 두루뜰공원은 인근 범지기마을 3, 7, 8, 9, 10, 12단지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의원소식

임채성 의원,
'냉·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 참석

학생 · 교직원 호흡기 건강 위해 냉난방기 꼼꼼한 관리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지난 5월 15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열린 '냉 · 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에 참석했다.

냉 · 난방 실내기 세척업무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임 의원이 교실 냉 · 난방기 세척에 대해 강조하면서 전담 TF팀을 제안해 꾸려졌다.

임 의원은 협의회 회원들과 그동안 학교 냉 · 난방 실내기 세척 진행사항을 논의한 뒤 늘봄유치원 교실에서 천장형 실내 냉 · 난방기 종합 세척 시연을 참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시연을 통해 필터먼지 뿐 아니라 냉 · 난방기 내부 곰팡이균 등이 깨끗이 세척되는 걸 확인했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학생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냉 · 난방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방문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등 유관기관 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은 4월 23일 교육청과 세종시경찰서 등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했다.

이날 이순열 의원은 당선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환담을 나눈 데 이어, 송재준 세종경찰서장과 장영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장을 순차적으로 만나 면담했다.

이 의원은 최교진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 해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방문을 마친 이 의원은 "이번 일정을 통해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 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대표자뿐 아니라, 현장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실시 촉구

손현옥 의원

5분 자유발언

>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 세종시교육청 산하 보건교육센터 설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5월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된 건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청소년 백서의 자료에 근거해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지난 1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했으나 2015년 교육부에서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폐기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통합적 제도 지원 가능해져야

안찬영 의원

5분 자유발언

>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점포수를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종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권 회복이 가능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5월 20일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 점포 활용방안 마련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등 상가 공실률 감소를 위한 통합적 제도 지원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부의장은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빈 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점포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스타 점포 유치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 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 및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과 같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부의장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정 관리 체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5분 자유발언

이영세 의원

>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 관정 개발과
>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
>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크게
> 세 가지 정책 대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5월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지하수 관정 21,579개를 비롯해 9천여 곳에 달하는 미등록 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불용공으로 인해 관정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시 지하수 관리센터' 형태의 전문 조직 설립을 통한 지하수 관리 일원화와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조체계 유지 ▲지하수 총량관리제로 지역별 지하수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해 지하수 개발 · 이용행위, 취수량 제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과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됐다.

은하수 추모공원 등 관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해야

5분 자유발언

차성호 의원

> 지난 3월 제정한 '1회용품
> 사용저감 조례'에 근거해 세종시
> 공공기관 주도로 할 수 있는
>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을
> 마련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 연서, 연기면)은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지원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 급증과 커피 문화 확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묘 협동조합에서 위탁 · 운영하는 홍성군 추모공원 장례식장의 경우 접객실 내 식기류와 세척기 등 구입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며 "홍성군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종시의 은하수 추모공원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가 반영해 행복도시 특별회계 현실화해야

채평석 의원

불변가액으로 묶여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 부강, 금남면)은 5월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먼저 채 의원은 "불변가액으로 묶여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2003년 기준 행복도시 건설비용은 총 8조 5천억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2018년 기준으로 총 13조원에 달하고 있어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채 의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이 투입된 비효율 사업들로 인해 세종시 정상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세종시청 사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소 공연장이 없는 아트센터,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없던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구축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가 지출만큼 정상적인 도시 건설비용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싱싱문화관 로컬푸드 식당, 시민들을 위해 다른 활용방안 강구해야

노종용 의원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은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노종용 의원(도담동)은 5월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관내 로컬푸드 식당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노종용 의원은 "상가공실률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역행하는 싱싱문화관 내 식당 운영을 즉시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일자리 창출 모델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싱싱문화관에 식당이 들어서고, 9월경에는 뷔페 운영이 계획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노 의원은 "넓은 주차장과 임대료 면제, 창업 지원금에 멘토링 지원까지 시와 로컬푸드주식회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식당이 관내 상가밀집지역 한복판에 설립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 의원은 외식 창업 장려 이전에 기존 소상공인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은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소방 현장활동대원 감염 방지를 위한 상시 격리시설 확충 촉구

상병헌 의원

>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건축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설계에 반영, 봉암지역대 청사 건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개축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5월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소방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를 위한 격리시설 확충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에 상 의원은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이 2차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확진 여부 판정 시까지 3차 감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빠르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상 의원은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건축 시 접촉자 격리시설을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봉암지역대 청사 건물을 '접촉자 격리시설'로 개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접촉자 격리시설 확충은 최일선 소방 현장활동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전문제를 넘어선 시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존폐 위기 몰린 가정어린이집 실질적 지원 촉구

임채성 의원

> 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안으로 보육도우미 인건비 전액 지원 4대 보험 어린이집 부담금 지원 영아반 운영금 지원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5월 28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촉구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세종시 출범 후 몇 년간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보육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의 한축을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장기화, 감염 우려,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의 이유로 영유아 퇴소가 이어지고 있어 163개 가정어린이집 중 약 40%는 정원의 절반 정도를 간신히 채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4대 보험 부담금의 경우 2018년부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나 36개월까지만 지원되어 중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육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4대 보험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름중 제2캠퍼스 교훈 삼아 새나루초 신설 등 적기에 추진해야

5분 자유발언

상병헌 의원

> 네 차례 중투심사에서 탈락한 새나루초 신설 문제로 인해 M3블록 1,500세대는 인근 초등학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6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적기에 학교 설립'을 당부했다.

300억원 이상 사업에만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총 예산 167억원이 투입되는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이 교육감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상 의원은 "2022년 3월 개교를 앞둔 아름중 제2캠퍼스 추진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확한 자료와 면밀한 분석에 의한 충실한 학생 수용률 관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 반영,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네 차례 중투심사에서 탈락한 새나루초 신설 문제로 인해 M3블록 1,500세대는 인근 초등학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효과적인 대안 수립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버스요금 인상안 재검토하고 할인 확대 및 무료화 시행해야

5분 자유발언

이태환 의원

>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조치원 신흥 · 신안 · 봉산 · 서창리)은 6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인상안 재점검과 나아가 버스요금 할인 확대 및 무료화 시행을 제안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지난 5월말 발표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재검토와 나아가 '버스요금 할인 확대와 무료화 시행'을 제안했다.

관내 아동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 2억 2천만원은 시 전체 예산 중 0.012%여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 없는 모바일형으로 여민전 발행해야

손인수 의원

> 모바일형 여민전을 도입한다면
> 예산 편성 없이도 소상공인들에게
>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 효과를 볼 수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 · 다정 · 나성동)은 6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모바일형 지역화폐 발급'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손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카드형으로 지역화폐가 발급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액의 0.5~1.3%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여민전이 모두가 즐거운 세종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형으로 여민전을 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한국조폐공사가 시작한 모바일형 지역화폐사업을 활용하면 지역 소상공인 부담 없이 무료로 모바일형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모바일형 여민전을 도입한다면 예산 편성 없이도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공공조형물 관련 업무 일원화, 시민의견 적극 수렴해야

김원식 의원

>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을 막고,
>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로 세종시의
> 역사와 철학이 담긴 공공조형물을 설치
> 하고 관리해 나가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 · 번암리)은 6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공조형물 관리개선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현황 파악은 물론,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원화된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부재를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와 시공사 선정 전 사전심사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규정 ▲공공조형물 건립 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관리업무 일원화 규정 ▲문화 · 교육 ·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공조형물 활용방안 마련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확보 방안으로 행복도시 건설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 마련해야

김원식 의원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해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 마련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 · 번암리)은 5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는 공공 시설물 현황을 언급하면서 현재까지 인수된 시설물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며 "세수 확보 방안으로 이들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환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초대 이사장 임기 만료 후 기관장 공모에만 약 10개월, 도시교통공사의 경우 기관장 공모에만 약 6개월이 걸렸다"면서 세종시 산하기관 임원 임명이 지연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격요건 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절차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예산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사 · 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모두 취업 심사 승인 여부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밝힌 현행 주민추천제의 한계점으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심의위원의 수와 구성방식의 불명확 ▲읍면동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 연고주의 현상 표출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 · 책임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방음터널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 요구

유 철 규 의원

세종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6억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외곽순환도로 등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관리방안 필요와
> 30년 후 세종시의 미래를 위하여 방음터널을 대체할 방안과 추가적인
> 방음터널의 설치는 지양해야 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대평 · 보람동)은 5월 28일 열린 제62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곽순환도로 등에 설치된 방음터널의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관리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유철규 의원은 세종시의 자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여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첫마을,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향후 5생활권에도 추가로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도시를 둘로 가르는 장벽인 동시에, 매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설교통국장에게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국도 1호선과 36번 국도가 교차하는 '너비뜰 교차로'에 설치되고 있는 방음터널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2012년과 2014년 등 몇 차례 변경되는 동안 세종시가 제대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시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유 의원은 현재 설치된 방음터널의 경우 법적인 환경목표(주간 65dB, 야간 55dB)보다 소음이 과도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도록(주간 47dB, 야간 42dB) 되어 있어 더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6억원, 향후 30년간 약 4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유지관리비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와 LH, 한국도로공사의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나온 '고속도로와 주택 건설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가 결정', '유지관리비용 항목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관련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30년 후 세종시의 미래를 위하여 방음터널을 대체할 방안과 추가적인 방음터널의 설치는 지양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시 주민 간 갈등 조정 반드시 이뤄져야

이 재 현 의원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

>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작년 기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78억원에 이르러,
>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 · 전의 · 전동면)은 5월 29일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과정과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재현 의원은 "세종시 생활폐기물은 도시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단, 2개소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작년 기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7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행복청의 '5-6 생활권 종합계획'과 달리 구 월산공단 위치가 아닌 읍 · 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으로 입지 후보지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동 지역 내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 및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으로 공모 지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읍 · 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폐기물 설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과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는 물론, 주민 간 갈등 조정 방안과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현 의원은 지역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PG 배관망 사업은 2023년까지 전국 301개소에서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 기존 LPG 용기 대비 30~5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관내 LPG 배관망 사업 공급 현황이 전무하다는 것은 대시민 홍보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개선하고 무공해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점검해야

이 태 환 의원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 시민과 약속한 인구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읍 · 면 지역에 주택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은 5월 29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각 분야별 대표적인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먼저 도시성장본부장에게 서창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다른 지역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보건의료시설 계획 에 못 미치는 읍면지역 의료시설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으로 이른 바 '원정 의료'를 가는 관내 환자의 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종시 의료 불균형과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읍 · 면 지역 인구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과 약속한 인구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읍 · 면 지역에 주택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를 잇는 '세종-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반석역-서창역 구간 도시철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시성장의 핵심인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관내 농업인 인구에 대해 "대표적인 로컬푸드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에서 농업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는 읍 · 면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로컬푸드의 선순환구조 완성과 지속가능한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시가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타 지역으로 출 · 퇴근하는 인구가 읍면 지역 15.5%, 동 지역 43.3%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없는 도시에서 10년 후 과연 그들이 이 도시에 머물 이유가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종시의 구직자들이 세종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지표 달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 사례처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 공개 등 지속적인 점검을 요구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지난 6년간 관내 미숙아 등 신고 누락 161건…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해야

차성호 의원

관내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4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에 달하는 '신고 누락'이 발생

>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 · 연서 · 연기)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시 관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4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161건에 달하는 '신고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성호 의원은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자보건법 제8조에 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가 누락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차 의원은 ▲미숙아 등 출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차 의원은 '관내 고 위험군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신장투석 환자 수는 총 235명으로 일주일 평균 2~3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석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투석환자들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이용 관리 한계점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지난 59회 임시회 때 최근 3년간 준공된 건축물 지하수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실시 결과 53%가 부적합으로 나타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8개월간 준공된 건축물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경로당 1개소를 포함한 4개소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로당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정수기를 통과한 물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

차 의원은 "질산성질소를 함유한 물을 음식 조리 목적으로 끓이면 해당 물질의 농도가 짙어져 인체에 더욱 유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차 의원은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 조리용수 사용 중지 또는 정수기 설치 이용 등 대책 강구 ▲일관되지 않은 수질 검사 결과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 ▲광역상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료 수질 검사 실시 ▲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의 적기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6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제61회 임시회 폐회 중 5월 18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제6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순서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행정사항에 대해 시정 개선과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 **이재현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제3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의원실 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윤희 부위원장**은 청사 내 시설 대관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 내 프린터와 복사기가 대부분 일본산 제품이라며, 앞으로는 프린터 교체 시 국산 제품 구매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손현옥 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된 입법지원 주무관이 여러 사정으로 중도에 퇴직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재임용 시 직급 상향을 요청했다. 또한 손 위원은 현수막 제작비 절감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사 대회의실에 LED 전광판 설치를 건의했다.
- **유철규 위원**은 의정포털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의원 요구자료 등록 시 명확한 제목 작성, 목록 첨부, 페이지 기재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유 위원은 의원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사무처 조직 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안찬영 위원**은 의회 운영방식의 본질에 대해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 고유의 역할에 따라 의원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업무 분장 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은 집행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회 홍보비를 지적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의정 홍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영세 위원**은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모든 의원들에게 회의가 끝난 후 3일 이내에는 임시 회의 속기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위원은 회의장 모니터를 통해 상임위 회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무선 영상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김원식 위원장

노종용 부위원장

손인수 위원

이윤희 위원

차성호 위원

행정복지 위원회

제62회 정례회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 심사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차와 제2차 회의를 열고,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인력운영비 미반영분 등 필수경비 위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행정복지위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9억 221만 9천원(9.89%) 증액한 8,209억 3,346만 3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34억 1,863만 5천원(10.16%) 증액한 9,043억 5,209만 8천원으로 편성됐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 등 6개 사업에서 1억 6,804만 1천원을 감액한 반면, '노인의날 행사' 등 3개 사업에서 2,500만원을 신설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 PC 추가 구입' 등 5개 사업에서 1억 3,960만원을 증액했다.

조치원문화정원 등 4곳 현장방문 실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6월 1일에 보람종합복지센터, 박연문화관, 누리락, 조치원문화정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문화예술 및 복지 관련 시설 점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운영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뒤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주요 방문지로 ▲ 3생활권 시민들의 종합복지 수요 및 생활편의를 위한 보람종합복지센터 ▲ 시민과 정부청사 직원에게 문화 · 편의공간으로 개방될 박연문화관 ▲ 음악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음악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누리락 ▲ 옛 정수장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조치원문화정원이 포함됐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3일 기획조정실과 대변인, 6월 4일 자치분권국과 운영지원과, 6월 5일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요발언

- **채평석 위원장**은 차기 대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를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민 · 관 · 정이 함께 공조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 **이윤희 부위원장**은 "교육과 산업, 문화 등 코로나19로 여러 변화가 있었던 만큼 기존과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보건방역 관련 시민들의 요구가 늘고 있어 감염병 관리 조직을 전문 인력으로 충실히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노종용 위원**은 세종시 연간 관광객이 17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제치고 '관광지별 타인 추천 의향 1위'를 기록하는 등 관광분야 발전 가능성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 **안찬영 위원**은 "세종시가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읍면동장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읍 · 면 · 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사업에서 동일인에게 예술가 개인 지원금, 예술단체 지원금을 중복 지급한 사례를 지적, 예술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이영세 위원**은 "세종시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사무실 2곳에 인력이 분산되는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결산 심사의 중점 방향은 지난 1년간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책 마련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에 있다.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 마무리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제5~6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6월 17일 제62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했다. 제62회 정례회 회기인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28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2020회계연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이영세 위원

이윤희 위원

이재현 위원

산업건설 위원회

지역 건설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 간담회

5월 14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건설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지역 건설 관련 기업인 및 관계자들과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지역 업체 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이어 지역 건설 관련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방안으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시 · 교육청 · 협회 · LH) 운영 ▲찾아가는 건설법규 교육(신규업체 등) 및 달라지는 건설법규 교육 실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사업 기본법 위반사례집 제작 배포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불법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이 제시됐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6월 1일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은하수 장례식장,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조치원읍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 회전교차로 ·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필요 지역 10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3일 경제산업국과 세종테크노파크, 6월 4일 도시성장본부와 공공건설사업소, 6월 5일 건설교통국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6월 8일 환경녹지국과 시설관리사업소, 6월 9일 농업정책보좌관과 세종로컬푸드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업무 보고 청취에 이어 각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임채성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

서금택 위원

손현옥 위원

채평석 위원

주요발언

- **차성호 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자재 선택과 설계 단계부터 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 환경부서와 업무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당부했다.
- **유철규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과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된 것을 지적하고 가급적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그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한 잦은 계획 변경 등을 지적하면서 행정 전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 쇄신을 촉구했다.
- **김원식 위원**은 "시민들을 위해 시청 광장을 개방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는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종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이용자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등 일회성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 **손인수 위원**은 지역경제 협의회 등 미운영 사례를 지적하며 각종 위원회를 조례 등 법령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는 장애인 등록 비율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아 장애인고용공단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과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 **이재현 위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 조건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와 충분한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이태환 위원**은 경제산업국에 세종시 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 버스 광고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우량기업 유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6월 11일, 12일 양일간 2019회계일반 · 특별회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1,973억 1,301만원과 세출 결산액 4,373억 3,591만원, 주택사업 · 도시개발 등 9개 특별회계 및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 제17호 태풍 피해 복구에 사용한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입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수납액에 대해 조속히 납부 조치를 요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전년도 세입액 등을 토대로 보다 명확히 예산을 추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어 본래 정책 목적과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추후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전반기 활동 마무리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7일에 마지막 6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의를 거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등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날 6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감 결과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요구사항 총 244건이 담겼다.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 심사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5월 21일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시청 시민안전실 ·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월 22일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예산 22억 4,989만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 구입비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억 8,36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878여억원 대비 총 904억 5,795여만원이 늘어난 8,783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재난 예비비 등 16개 사업에서 29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전액을 교육재난 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아름중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및 신축과 평생교육원 등 직속기관을 비롯해 수왕초와 연양초 등 증 · 개축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관내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 완료

세종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보급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종시 학생 누구나 학교 도서관에서 친일인명사전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상병헌 위원장의 첫 제안으로 이뤄졌다.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4월 24일 1층 대회의실에서 대학 관계자와 관계기관,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었던 상 위원장은 "일곱 분의 패널들로부터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고, 토론자간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세종시에 대학캠퍼스 유치를 염원하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밝혔다.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5월 22일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하며, 상병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 중 학생 1인당 5만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발언

- **상병헌 위원장**은 "소방대원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격리시설 확충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민원콜센터 직원 10명이 하루 평균 807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업무량이 폭증했는데도 정원 증가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 본예산에 인력증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집행부가 답변했으나, 금번 추경에서도 누락시켰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손현옥 부위원장**은 "민원콜센터의 인원 부족과 통화량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등에서 도입한 문자 ·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모바일콜센터를 도입하면 청각장애인 상담과 장시간 통화대기, 반복 · 유사민원 해결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출동건수, 전통시장, 산지가 많은 금남면과 인구가 9만여 명에 가까운 아름 · 고운 · 종촌동 지역에 119 안전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성수 위원**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륜차가 인도로 다니는 등 관련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체 개선 노력이 없는 느슨한 행정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200m나 줄을 서는 상황에서 민생사법경찰을 통한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이 없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 **박용희 위원**은 "민원콜센터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50% 수준에 불과한데, 인구가 3배나 늘었음에도 직원 증원이 잘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여 피로도가 높아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고, 민원콜센터의 조속한 인력 증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박 위원은 "시민안전실이 발주한 수의계약의 경우 우리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해 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임채성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에 위치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면서, 과오납 된 수업료를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주소 오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세종시청(시민안전실 · 소방본부)과 세종시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사업비 이월액 과다 ▲민생사법 분야 등 성과지표 설정 미흡 ▲민원콜센터 업무 과다 방치 ▲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 건수 증가 및 연말 집중현상 ▲ 성인지 결산 목표치 과소설정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결산 교육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위원

박용희 위원

안찬영 위원

이순열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세종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2020년도 세종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8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2,338억원(14.6%) 증액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참여공동체과 소관 전의면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등 15개 사업에서 10억 8,479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분권과 소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등 22사업에서 10억 8,479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

6월 27일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8,783억 원으로 기정예산 7,878억 원에서 904억원(11.5%)이 증액됐다. 세출 예산안 중 조직 예산과 소관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등 14개 사업에서 32억 5천 7백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교육재난지원비 등 2개 사업에서 32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심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위생적으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책 소독기 구입비를 반영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6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6월 18일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 첫째,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정운용 대책 수립 둘째, 재원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세입 증대 방안 추진 셋째, 세외수입 미수납 종합대책 마련 넷째, 예산집행 잔액 최소화 및 편성 예산의 불용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6월 19일 종합 심사에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첫째, 사업 제반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 · 분석하여 전용 최소화 둘째, 성과 보고에 초과 달성,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반영토록 개선 셋째, 사업시기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으로 예산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 넷째, 각 부서별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손현옥 위원

김원식 위원

박성수 위원

상병헌 위원

안찬영 위원

유철규 위원

이순열 위원

이윤희 위원

이재현 위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 · 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6월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이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5차 회의를 끝으로 20개월간 활동 마무리

6월 22일 오전 11시 20개월간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집행부로부터 2020년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20개월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행정수도 특위의 공식 활동은 종료됐으며,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6월 23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됐다.

한편, 행정수도완성 특위는 지난 20개월간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 공조활동을 통해 총 25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에 이어,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특위의 활동을 기반으로 2019년 3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과 2019년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를 비롯한 각 정당과 전국 지방의회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학캠퍼스유치 특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 · 차성호 부위원장 선임

4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병헌 의원과 차성호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학캠퍼스유치특위는 상병헌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안찬영, 박성수 의원 총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집행부 ·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방문 등 다각적인 대내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학 유치 특위 활동 본격 시작

6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의, 현장방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안을 채택했다. 이어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대학 유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 ·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위원장은 "특위 활동 계획에 따라 텅 비어있는 대학부지에 단독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교육부와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학과 설립을 위해 관내 산업단지 및 입주 희망대학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상병헌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

안찬영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연구모임

> 연구모임에서 교통환경 개선과 추가 저상버스 도입, 노선 발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 인 수 대표의원

연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 과제 등 논의

4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 과제 등을 논의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의원인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박성수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교통과 임수현 대중교통담당,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호무 세종도시교통공사 팀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장애인인권연대 문경희 위원장과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손정원 사무국장이 참석해 실제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간담회의 핵심 논의 사항은 크게 연구모임 활동계획과 연구용역 과제로 압축됐다. 손인수 대표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교통약자 이동비율은 세종시가 가장 높은 편인데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 편의시설 비율 등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연구모임에서 교통환경 개선과 추가 저상버스 도입, 노선 발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연구모임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제안해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과제가 효과적으로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세종시내 도로 330여개소에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과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설치 규정의 탄력적 적용 방안, 신기술을 고려한 고원식 횡단보도 대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 보고

5월 19일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의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저상버스 노선 확대와 연관된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과제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서는 목표치(45%) 대비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23.8%)과 저조한 시내버스 이용률(8.8%)을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구모임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 조사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최저 폭 분석 ▲저상버스 이용 교통약자 설문조사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에 이르는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를 설정했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교통 흐름 개선과 차량 충격 완화, 보행자 안전 등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실제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인 손인수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시 · 도 사례를 참고해서 최적의 개선방향을 함께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 진입부와 진출부 기준 등 특화된 가이드라인 설정 ▲보행자를 고려한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 등에 대해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02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

>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배치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관련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체육시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

유철규 대표의원

2차 간담회 열고 인터넷 예약제 개선방안 등 논의

4월 23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공공 체육시설 이용 현황 및 공공체육시설 인터넷 예약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찬영 의원, 상병헌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책임연구원, 세종시체육회 황성연 팀장, 세종시 체육진흥과장,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장 등 연구모임 회원 7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미옥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및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관계 부서의 보고를 청취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철규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일부종목은 일괄적인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율이용제와 인터넷 예약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청취하고, "종목별로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빛,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체육시설에 대하여 종목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원 발생 체육시설 찾아 해결방안 모색

5월 12일에 민원 발생이 잦은 동 지역 실외 공공체육시설 2곳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유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찬영 의원, 상병헌 의원,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 책임연구원, 세종시체육회 황성연 팀장, 세종시 체육진흥과장,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장 등 연구모임 회원 7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체육학과 임승엽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유철규 대표의원은 현장에서 "현재 동 지역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빛과 소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지속적인 민원의 경우 주민 간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 없이 체육시설 이용시간 제한만 이뤄진다면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배치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관련 민원이 현저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체육시설의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면밀히 분석해 종목별 실외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이용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빛과 소음이 불가피한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외곽에 배치해 면과 동 지역 간 상호 교류를 유도하고 추후 세종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03

도 · 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 이번 과제로 추진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형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우리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회원 여러분들과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2차 간담회 열고 올해 추진 연구과제 심도 있게 논의

4월 29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모임 명칭 확정과 올해 추진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성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현 의원, 이윤희 의원, 유인호 전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임수연 청년창업농, 세종시 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과장, 농업기술센터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준공 예정인 세종시 공공급식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종시 여건에 가장 적합한 운영 형태에 관한 논의 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확정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현안 사항인 도시농업센터의 조속한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있어 규모에 맞는 최선의 운영 형태 도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회원들은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차성호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번 과제로 추진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형태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우리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데 회원 여러분들과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성호 대표의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명구처럼 누군가의 말 한 마디는 깊은 사색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활동을 예측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신 전자회의록을 통해 제62회 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의 '의정 단상'을 들여다봤다.

✲ 전반기 활동 기준 (이름 정렬은 가나다 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실버존 지정'에 대해

세종시 노인 인구가 3만 700 정도 되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3만 9000인데 아산시는 한 50군데가 돼요. 우리의 10배 정도 되는 거지요. 전국의 지자체 열아홉 군데가 실버존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노인분들의 주차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세종시 관광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여 곳의 관광지에 입장객 현황 조사를 해 보면 현재 170만 명이 조금 넘어요.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세종시가 관광 만족도 1등이에요. 또 여행 지별로 관광지를 갔으니까 그거를 타인에게 추천하는 의향이 있잖아요. 추천 의향도 이것도 예상했듯이 세종이 1위예요, 이것도. (…) 이제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펼칠 때가 됐거든요. (…) 우리 도시에 맞는 콘셉트를 관광안내소에 넣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한다면 세종시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으로서는 가장 적합합니다."

노종용 의원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에 대해

"2019년도에 이 중대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이 경기도, 부산 그다음이 세종이에요. 나머지 두 군데는 시설물, 어린이가 많다고 치자 이거예요. 더 황당한 건 시설 수 가장 사고가 많은 게 '세종'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자료에. '최근 4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부산, 경기, 세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설 대비 가장 사고가 많은 곳은 세종이다.'라고.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박성수 의원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콜센터 직원 근무 실태'에 대해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콜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적극적인 개선이 되려면 일단 직원 채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800건 이상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근무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용희 의원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예정 지역 내 학생 유발률 연구 용역'에 대해

"세종시 예정 지역 내의 학생 유발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그동안에도 수행했고 아까 나온 자료도 그 일환으로 나온 결과물인데요.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오늘 자료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18년, 2019년도에도 이를테면 예정 지역 내 중기 학생 배치 계획 타당도 분석이라는 연구용역 자료 또 1생활권 전입 예정 학생 수 조사 결과보고서 이런 자료들도 현상과 예측이 정반대인 연구 결과물들이에요. 집행기관의 각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상병헌 의원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최근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한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힘을 모아 21대 국회의 의사일정이 본격화되는 대로 실현 가능한 중점 과제 등을 중심으로 결의문 채택과 성명서 전달, 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치권 이슈를 선점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서금택 의원 (전반기 의장)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자료 제출받은 거 중에 농촌관광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 우리 조례를 보면 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에서 대행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행 실적은 없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로컬푸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조례상에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어요."

손인수 의원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동 지역 학교 소방차 진입'에 대해

그런데 동 지역 학교를 한번 가 보시면 교문하고 학생들이 출입하는 거하고 차량들이 들어가는 차량 통행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또 학교 자체가 회전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 그래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소방차가 학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소방 대피 훈련 시라든지 그럴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해 주셔서 학생들한테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손현옥 의원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공시설물 인수점검'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도 지난 6년 동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해 가면서 저도 직접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활용하자라고 얘기했고 부서별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준공 승인 전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행복청이 건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시설 점검하고 준공할 때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안찬영 의원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로컬푸드 직매장 계획 변경'에 대해

"그러면 옮기려 했다고 치면 네 번이나 검토해 보고 했으면 실제로 적절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적절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네 번에 걸쳐서 대면보고, 메모보고, 대면보고, 메모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란만 일으켰습니다. (…) 그리고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가려다가 다정동으로 못 가고 다시 새롬동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우리 행정은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실제로 옮기지도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유철규 의원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아름동 금연거리 조형물'에 대해

"상점 주민분들 내지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 금연거리에 웬 빨간색 하트가 들어올까?" 굉장히 생뚱맞았대요. 그 작품 비용도 엄청 비쌌을 뿐더러 강원도에서 이동하면서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상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참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인데 본인들의 의사가 "같이 협업해서 꾸며 나가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엄청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설치물이 테마와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고요."

이순열 의원

제6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중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양방에 집중되고 있는 이 치료의 범위를 한방까지 늘려서 임신이나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인지 또는 가격을 얼마로 할 건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할 건지, 몇 명을 할 건지 이것은 이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나 또는 이 사업을 할 사람들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까지 다 포함되면 좋겠지요."

이영세 의원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 인력 운용'에 대해

"(1인 보건지소 관련) 혼자 있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일 것 같거든요. 점심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민원 처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가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더 조직을 탄탄하게 하려면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인력이 부족한 것과 감염병 쪽하고 방역 쪽을 잘 나누는 것도 소장님이 잘 챙겨서 직원들이 너무 과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에 대해

"농촌에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대책도 없이 부산물 소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 앞으로 행정이, 물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되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시민 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이 어떤 게 불편한가를 생각할 때, 물론 행정도 중요하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소한으로 해 주는 공무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현 의원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예산 심의 전 사업 홍보'에 대해

"우리 시 재정 예산 자체도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 부분을 시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은 다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미 언론보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인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홍보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태환 의원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오토바이 사고 예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동떨어지게 행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국민제보앱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인도에 올라온 오토바이 이륜차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이륜차라든지 난폭운전을 하는 이륜차 동영상이나 사진만 찍어서 제보를 하면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전체 대상이 힘들다면 세종시의 영유아의 학부모라든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위주로 해서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민들이 제보하면 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임채성 의원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신청 건수가 많고 선정 건수가 적다는 얘기는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 그런데 그렇게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 석면 슬레이트가 면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단계적 목표를 삼아서 몇 년도까지는 적어도 우리 세종시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적어도 주택에는 없는, 주택과 주택 부설건물 창고에는 없는 그런 외장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성호 의원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지역 업체 보호 강화'에 대해

"현재 등록만 해 놓고 등록한지 얼마 안 되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해 놓고 바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또 사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업체를 순수한 우리 지역 업체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순수하게 업체를 쭉 해 오던 분들을 보호하고, 또 일거리를 주는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평석 의원

제62회 제1차 정례회

제62회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5일간 진행됐다. 이번 회기 중에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

-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김원식·이태환·유철규·노종용·차성호 의원 발의
  원안가결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수정가결
-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시정연설 청취의 건**
- **휴회의 건**
  – 2020.5.21.~5.27.(7일간)

제2차 본회의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3건) 추진,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2건) 추진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토지(매입): 10건 2,708㎡ 3,088,347천원, 건물(매입+신축) : 5건 4,651.6㎡ 11,743,000천원

-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20년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 1,975,600천원
  – 시설설치비 500,000천원, 인건비 820,000천원, 사업비 360,000천원, 운영비 295,600천원
  ※ 당초 세종시 복지재단 출연금 2,036,136천원 중 상반기 집행 예정액 1,036,136천원을 감한 1,000,000천원과 국비 975,600천원 합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사무내용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위탁시설 : 도담동 복컴, 다정동 복컴, 소요예산 : 168,680천원(2개소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 사업비 등),
  ※ '21년도부터 센터 1개소 당 연 57,360천원 소요 예정(소요예산 미반영)

-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사무내용 보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전반, 기본현황 : 종사자 10명(이용인 정원 30명), 시설 면적 471.03㎡
  ※ 인력기준: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8명, 사무원 1명

-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출자대상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 납입자본금 1,678백만원(시비 100%), 출자방식: 현금출자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7명 [단장(비상근), 2팀(6명)], (사업비) 6억/년 [단, 2020년은 3억(하반기)], 설치장소 : 세종시청 6층 (607-1호)

※ 평상시 업무 (위기경보 1단계 '관심'):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정책 개발 및 대책 수립, 감염병 발생 감시 · 분석 및 정보 환류 등, 위기시 업무 (위기경보 2단계 '주의'이상):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 대응팀을 구성하여 시 · 도 현장 역학조사 지원, 대량환자 발생 대비 대응책 마련, 계획 수립 등 지원 등

■ **2020년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1,959,000천원을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

■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20년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1,250,000천원을 사업 주관기관인 (재)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함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대전 · 세종 · 충남 공동 추진을 위한 시비 20억원을 사업 총괄대학교인 충남대학교에 출연

■ **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법인형태 특수목적법인(「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출자법인명 : 세종벤처밸리(주)(가칭), 출자규모 자본금의 20%, 2억원, 출자방법 현금 출자(市 투자진흥기금)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교육감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기정예산액에서 2억 8000만 원 증액, 180억원 규모

■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교육감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토지 취득: (가칭)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토지 10,000㎡를 8,432,520천원,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 동 증축을 위한 토지 17,510㎡를 2,953,068천원에 매입하고자 함, 건물 취득: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증축을 위한 면적 7,089㎡에 16,298,000천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며, 수왕초 교사동 증 · 개축 및 체육관 증축을 위한 면적 3,267㎡에 7,470,000천원을 투자하여 증 · 개축하고자 함, 변경 취득: 연양초 추가 학생 배치에 따른 시설확대 증축을 위해 면적 2,641㎡, 4,177,000천원 증가한 6,525㎡에 12,878,000천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함.

■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사무내용 조치원읍 번암리 현장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기본현황 시설: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1리 마을회관 2층, 조직구성 : 4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원 2명), 위탁기간 : '20.7.1.~'22.12.31(2년 6개월), 위탁금액 : 1,774,600천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상병헌·박용희·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에 관해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교육재난지원비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교육재난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 수정가결

주요내용 당초예산 대비 2,338억원(14.6%)이 증가한 1조 8389억원 규모, 참여공동체과 소관 전의면 원성2리 마을회관 신축 등 15개 사업에 10억 847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분권과 소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등 총 22개 사업에 10억 847만원을 증액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대비 300억원(19.4%)이 증가한 1,853억 원 규모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 재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300억원,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기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1억 7,327만원 등 반영

■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감 제출 수정가결

주요내용 기정예산 7878억 원 대비 11.5% 증액된 8783억원, 조직예산과 소관 재난 · 재해목적예비비 등 14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교육재난지원금 등 2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원을 증액

■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김원식·유철규 의원

제3차 본회의

■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차성호·이재현·이태환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5.30.~6.22.(24일간)

제4차 본회의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주요내용 시민에 대한 청사 내 시설 대관 활성화, 의회사무처 업무 분장 조정,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처우 개선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교육감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적극행정의 목적, 실행계획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심의, 위원장의 직무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현옥 의원 대표발의)
(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4조), 취임 전 재직했던 민간 분야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직무 관련 조언 · 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함(안 제6조), 시와 시 산하기관에 의원 자신의 가족 등이 채용되도록 하거나 해당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안 제8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이재현·이태환·김원식·상병헌·이영세·손현옥·채평석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14. 9.24.)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6호)
– 잘못 인용 중인 조례명을 정비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조)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이 의결(2019.12.18.)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제정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옥외광고물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와 과태료 부과 · 징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조치원읍장에게 위임 등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기획조정실장의 소관 사무에서 재산관리를 삭제, 참여예산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 · 조정, 지역생활권 발전에 관한 사무 분장을 도시성장본부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함(안 제9조 및 제15조), 자치분권국장의 소관 사무에 회계 관리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국 · 공유재산 관리, 청사의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소관 사무에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소관 사무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213명에서 2,299명으로 증원함(안 제46조 및 별표 5) 등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옥외광고물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와 과태료 부과 · 징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삭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조치원읍장에게 위임 등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에 공공개발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공인 관련 조문을 삭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2017년 7월 관련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8조제2항) 등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 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동 전환 대상 용지 5,245필지를 면 관할구역에서 해당 동 관할구역으로 변경(별표 8)

■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연기면 해밀리(폐지)에 해밀동을 설치하고, 금남면 집현리(폐지)에 집현동을 설치하며, 연기면 산울리(폐지)에 산울동을 설치하고, 연동면 합강리 일부에 합강동을 설치함(별표1, 별표2)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도담동(행정동)에서 산울동과 해밀동을 관할하고 소담동(행정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을 관할하며, 2020년 9월 입주 예정인 해밀동에 11통, 83반을 부여함(별표1), 연기면 해밀리, 금남면 집현1리, 금남면 집현2리, 연기면 산울리, 연동면 합강1리를 폐지하고 연동면 합강2리는 합강리로 변경함(별표2), 새롬동, 다정동, 나성동을 관할하는 새롬동(행정동)에서 다정동(행정동)을 별도로 분리함(별표1)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수정가결

주요내용 금남면사무소, 연서면사무소, 도담동주민센터, 종촌동주민센터, 고운동주민센터, 새롬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함(별표) 등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수정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등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안 제3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수정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수정가결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12조)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사무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기본현황 : 현 위탁기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력규모: 책임교수 1명, 책임연구원 1명, 시설의 설치 · 운영이 아닌 지원단 인력과 업무 중심 위탁 등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국상위 법령에 기 규정, 신설 등으로 중복 ·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기준연도 2019년, 목표연도 2024년(단기), 2030년(장기),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경관자원의 조사 · 평가 및 경관 기본구상 등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사무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기본현황) 現 위탁기관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인력규모 : 책임교수 1명, 책임연구원 1명 – 시설의 설치 · 운영이 아닌 지원단 인력과 업무 중심 위탁,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 ('21.1.1.~'23.12.31.), 年69,412천원 (국비50%, 시비50% / '20년 기준) 등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세 의원 대표발의)
(이영세 · 유철규 · 이윤희 · 이순열 · 이태환 · 손인수 · 손현옥 · 노종용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 적용 근거를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
(노종용 · 이윤희 · 채평석 · 이순열 · 상병헌 · 유철규 · 이태환 · 이영세 · 손현옥 · 임채성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대상사업에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4호)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
(노종용 · 이태환 · 유철규 · 손현옥 · 이영세 · 임채성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국제문화교류 진흥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전문인력 양성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민간의 국제교류 진흥사업 등 국제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의 범위를 확장함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위탁이 종료된 밀마루복지마을시설의 관리 · 운영 사업을 삭제함(안 제19조제4호) 등

■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종용 의원 대표발의)
(노종용·이윤희·상병헌·이순열·유철규·이태환·손현옥·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체계적인 외국인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5호)

■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평석 의원 대표발의)
(채평석·이윤희·손인수·노종용·상병헌·손현옥·이영세 의원 발의) 수정가결

주요내용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감면대상자 확인으로 이용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8조제4항), 당일 시설사용 취소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함(안 제9조), 전월산캠핑장 신규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규정함(별표 3), 예약 확정시설에 대한 양도 · 양수 금지 등을 이용자 준수사항에 규정함(별표 5)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이윤희·상병헌·노종용·채평석·손인수·이영세·박성수·이순열·안찬영·박용희·이태환·유철규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 시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감염병 위기 시 추가적인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에 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손현옥 의원 대표발의)
(손현옥·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수정가결

주요내용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 성차별 · 성폭력의 근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세 의원 대표발의)
(유철규·차성호·손현옥·박성수·박용희·상병헌·채평석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사항 규정,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 난임극복을 위한 한방치료, 상담 등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위탁 규정

■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운영현황 위탁운영/(주)TSK코퍼레이션/총27명 2조 2교대/7,658백만원/3년, (세부시설) 반입공급, 기계적전처리, 건조 및 성형, 건조배가스 처리, 위탁금액: 총 10,191백만원/3년(年3,397백만원/시비/용역결과 산출)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박성수 의원 대표발의)
(박성수·손현옥·노종용·안찬영·손인수·상병헌·채평석·이영세·이순열·이윤희 의원 발의) 수정가결

주요내용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놀 권리 자문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상위 법령에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주요내용 행정수도 완성 등 시장 공약사업 반영을 위한 시책추진상황, 문화예술지원과 관광정책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사업 추진 등 총 205건(시정 5, 주의 15, 개선 56, 권고 129) 지적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원안가결

주요내용 시정 22건, 주의 17건, 개선 84건 등 총 224건 지적사항

■ **도시관리계획(홍익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골프장 휴게실, 학생회관 캐노피 설치 등에 따른 세부조성계획 변경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등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현 의원 대표발의)
(이재현·김원식·이영세·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태환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

■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국토부 추진 '선도사업'으로 선정('18.8.24.)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함

■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1조 및 제3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내용 시정 6건, 개선 37건, 권고 47건 등 총 90건 지적사항

■ **자동집하시설(제1·2·3·5·1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위탁기간: '21.1.1.~'23.12.31.(3년), 위탁금액: 12,016백만원/3(年4,005백만원/시비/용역결과), 시설전부 위탁관리(집하장 시설 및 관로, 투입설비) 등

■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규모 지하1층, 지상 3층 / 연면적 2,662㎡, 시설현황 : 개장 '10.8.1./수영장(25m×4레인), 헬스장, 목욕탕 등,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위탁금액: 총 1,872백만원/ (年624백만원/시비/용역결과 산출)

■ **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2011년 이후 동결된 분뇨의 수집 · 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분뇨 수집 · 운반업자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 운용, 등 ·하굣길 교통지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등

■ **세종특별자치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차성호 의원 대표발의)
(차성호·노종용·유철규·이윤희·상병헌·손인수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교통안전지도사 모집 ·운용, 등 ·하굣길 교통지도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2025 세종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원안가결

결정내용 세종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재정비), 위치: 세종시 일원 392.32㎢(행복도시 건설지역 72.91㎢ 제외),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5년, 세부계획: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결정(변경)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주요내용 하천수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방법 및 용도별 단가 등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제3항),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3)

■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희 의원 대표발의)
(박용희·박성수·안찬영·이윤희·이영세·이순열·상병헌·손인수·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기금운용관을 담당 국장에서 기금 업무 담당 실장·국장으로 변경하여 현행에 맞게 조정함(안 제5조)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현옥 의원 대표발의)
(손현옥·안찬영·손인수·박성수·이영세·박용희·상병헌·임채성 의원 발의) 수정가결

주요내용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등 광역시 지위에 맞게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함(안 제3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근거 조문을 수정함(안 제3조제2항제4호) 등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임채성·박성수·상병헌·박용희·손현옥·노종용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민원총괄 업무 담당 실장·국장으로 변경하여 현행법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제2항) 등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상병헌·박용희·손현옥·박성수·임채성 의원 발의) 원안가결

주요내용 민간협의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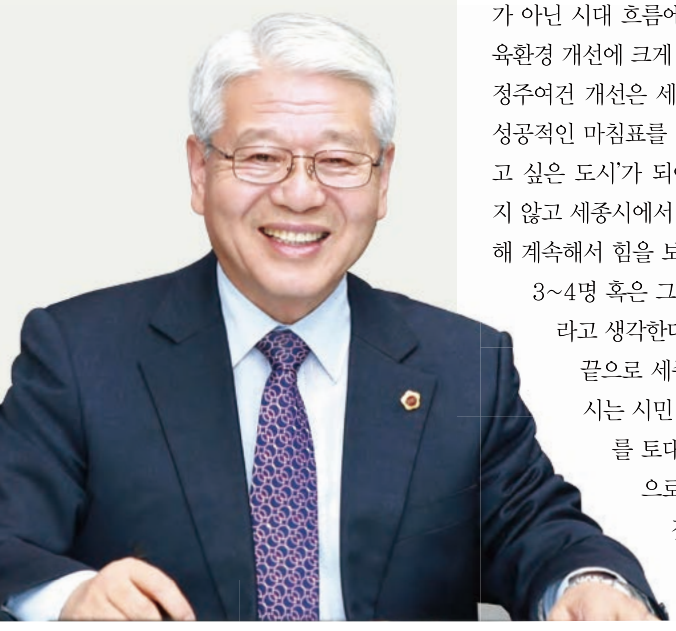
주요내용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그 외 처리안건

-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원안가결
-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원안가결
-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원안가결
-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제출) 원안가결
-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제출) 원안가결
-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제출)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제3대 전반기 세종시의회를 되돌아보니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확보, 연내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논의가 실행 단계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되돌아보니, 일부 아쉬운 점도, 노력이 뜻깊은 결실로 이어져 뿌듯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 헌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아마 그들이 없었다면, 현재 세종시의 비약적인 성장은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열린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힘써 왔다. 제3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속적인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의원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의회 운영의 기반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현장을 열심히 찾아 다녔다. 각종 행사는 물론, 간담회 등에서 만난 시민들의 바람은 한결 같았다.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종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확보한 만큼, 연내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논의가 실행 단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세종시 3법 개정에도 노력해야 한다. 먼저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점차 확보해나가는 게 중요해 보인다. 개정안에 담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과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와 미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읍·면과 동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고자 하는 주인의식과 참여정신이 빛나는 순간들이 많았다. 또한 제3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이 중앙투자심사 기준 300억원 상향, 완화됨에 따라 시교육감 재량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시교육청은 물론, 세종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치원중학교 신설과 조치원여중 증·개축을 이뤄냈다. 기존 단성 중학교가 아닌 시대 흐름에 맞게 혼성 중학교로 건립될 계획이어서,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은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세종시가 장차 80만 대도시로 도시 완성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해야 하고, 나아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세종시의 미래이자 가능성인 지역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세종시에서 학업은 물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겠다. 청년 1명이 결혼을 해서 2명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3~4명 혹은 그 이상의 시민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종시가 지향해야 할 인구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장 **서 금 택**

입법정보

CONTENTS

생활법령

–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58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59
– 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60
–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61

주요입법 동향

– 최근 공포 법령 62
–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64
–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66

법령 해석 사례

– 예비군법 시행규칙 68
– 국민연금법 69

최근 시행법령 70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72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1 생활법령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데요. 과연 회사가 다조아씨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01 다모아

복지포인트가 매년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에서 말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02 다조아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매년 직원에게 배정해주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복지포인트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으로 봐야 해요.

평결 정답은 1번. 다모아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임금 ·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경제 · 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다조아씨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로 봐야 할 것이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2 생활법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노양심"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녀 "노라나"를 대리하여 "노라나"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요"씨에게 매도한 다음 "팔아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노라나"가 "진정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01 노라나

"노양심"씨는 미성년자인 저의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매매계약을 "팔아요"씨와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체결된 "팔아요"씨와 "진정한"씨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02 진정한

"노라나"의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팔아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노양심"씨가 "노라나"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앞으로 마쳐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합니다.

평결 정답은 2번 진정한 입니다.

본 건 사안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녀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이를 미루어 보면, 위 사건에서 "진정한"씨가 "팔아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양심"씨와 "팔아요"씨와의 계약이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진정한"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노라나"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의의 제3자인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3 생활법령 보증계약만 체결하면 만사 OK?!

"주식회사 A건설"은 "C사"의 공장신축공사를 맡게 되면서,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주식회사 B레미콘"을 통해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신축을 발주한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의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 보증하기 위한 보증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습니다.

1년 후, "주식회사 A건설"에서 레미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주식회사 B레미콘"은 연대보증인인 "C사"에 미지급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보증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미지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주식회사 B레미콘"은 "C사로부터 미지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01 C사

당시 계약서에 저희 회사가 연대보증을 한 것은 맞지만, 계약내용을 보니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만 기재되어 있고, 레미콘의 총 공급량과 보증해야 하는 총액은 기재되지 않았더군요. 이와 같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알 수 없는 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저희는 레미콘 대금을 지불할 수 없어요!

02 주식회사 B레미콘

일반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레미콘만큼 구입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고, 이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당 단가에 공급 총량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채무를 확정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따라서 C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대금을 지불해 주세요!

평결 정답은 1번 C사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 · 수색영장으로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428조의3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이를 미루어보면, "C사"는 "주식회사 A건설"이 "주식회사 B레미콘"에게 부담하는 불확정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의사가 표시된 계약서에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레미콘의 총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보증계약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B레미콘"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민법」 제42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보증계약의 유효함을 근거로 "C사"에 미지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법제처(생활법령)

4 생활법령 성희롱 편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엄탕해(남)는 같은 원룸 건물 옆방에 사는 어굴애(여)에게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그녀의 방 출입문에 꽂아두었습니다.
어굴애는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탕해를 고소하기로 하는데요. 과연, 엄탕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01 검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탕해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옆방에 사는 피해자 어굴애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6차례에 걸쳐 보냈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02 엄탕해

제가 저질스런 표현으로 어굴애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검사가 처벌조항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편지를 어굴애의 방 출입문에 직접 꽂아 둔 것뿐이지,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평결 정답은 2번 엄탕해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됩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따라서 해당 법조항으로는 엄탕해씨를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 그 밖에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나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사례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쾌함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요입법 동향

최근 공포 법령

01 행정절차법 시행령

'20. 6.9 공포 /'20. 6.11 시행/대통령령 제30761호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고,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677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의 개최 요건을 정하고, 청문 주재자의 제척 대상 부서의 범위를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 ·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20. 6.16 공포 /'20. 6.16 시행/대통령령 제30782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 ·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피해 저감시설 및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공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과 업무 휴업 · 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 6.23 공포 /'20. 9.24 시행/대통령령 제30797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한편,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경우 등에는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0. 6.30 공포 /'20. 7. 1 시행/대통령령 제30805호

법률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05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20. 7.14 공포 /'20. 7. 15 시행/대통령령 제30831호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포상금이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6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20. 7.14 공포 /'20. 8. 15 시행/대통령령 제30829호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등이 중학교에 입학 ·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면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장이 입학 ·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입학 · 전학 또는 편입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당 학력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학력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입법 동향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

한 기업이 2주간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후 전원을 탈락시켰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자 전원 합격시키는 사건이 있었음.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자가 확정된 후 불합격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절대적 열위에 있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

이에 채용과정 중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 ·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제10조, 제13조의2 신설, 제17조).

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5인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시 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제66조제1호제5호 삭제 및 제87조의2제5호 신설).

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의원 등 11인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 이 사고로 인해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0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 국회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요입법 동향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0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7. 28. 까지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와 같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심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아동의 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0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7. 31. 까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영업자를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포 수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에서 50개 이상인 가맹사업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등 소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양 및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0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7. 31. 까지

수산자원은 지속 감소추세이며, 1차 산업 기피 영향 및 사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심화로 수산업 성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인 수요자와의 거래 등 유통차단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0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7. 31. 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과 제20조제4항에서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하,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증 등을 발급받아 폐업을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따라서,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증 등의 제출을 갈음하여 행정절차에 따르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불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단을 서면제출 방식으로 한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였음. 따라서, 불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을 전자문서 제출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취약분야에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0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8. 11. 까지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시행 공고와 심사결과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대상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견제출

의견제출 '20. 8. 12. 까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질 향상 도모.
-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07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8. 17까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0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 8. 17까지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를 합리화하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해석 사례 1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질의

질의요지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하는지?

회답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 또는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합니다.

이유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운영 실태를 확인 · 점검하고 예비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서는 예비군의 교육훈련(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7조제2항 후단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규칙 별표에서는 감사 분야별 문책대상 행위와 비위 및 과실정도에 따라 관계자 문책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 또는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각주: 법령 입안 · 심사 기준(2019, 법제처 개정 발행) p.763 참조)임을 고려하면, 해당 별표 규정에서는 '진단서 변조' 행위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군 교육훈련을 면탈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서 변조를 문책대상 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6호에서는 문책대상 행위의 하나로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목적으로 관계자가 교육 소집통지서 전달 부실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란 제5호도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의 결과 발생이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관계자가 진단서 변조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문책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교육훈련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문책대상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란 제5호는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이라는 포괄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을 위한 진단서 변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예비군 교육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받는 훈련이고, 그 면탈 행위의 주체도 예비군 교육훈련 담당자 등 관계자가 아니라 훈련 당사자인 예비군대원이므로, '예비군 교육훈련 면탈'과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를 위한 진단서 변조'는 행위의 주체나 양태가 전혀 다른 행위로서 같은 호로 규정할 정도로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2

질의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혼인 기간(각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는지?

회답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등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서 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하도록 하여, 「민법」 제160조에 따른 기간 계산의 방법과 다르게 월 단위로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혼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달리 혼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60조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혼인 기간이 월 단위로 계산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드시 연계되는 기간도 아니므로 혼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같이 월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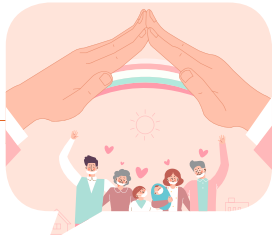
그리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제1호)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제2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기간은 모두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기간이므로 제외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하려면 제외되는 기간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0조에 따라 계산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혼인 기간 ·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혼인 유지기간"란에서는 연도 · 월 · 일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혼인 기간을 계산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각주: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례 참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시행법령

0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월 5일 시행



온라인 출생신고 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이 지연됨에 따라 양육수당 등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지 외의 다른 시 · 읍 · 면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등을 수리 ·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02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8월 5일 시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 · 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 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03 주차장법

「주차장법」 일부개정, 8월 5일 시행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인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04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8월 12일 시행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월 12일 시행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정의를 신설하고,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결제 거절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사유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06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8월 19일 시행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정한 금지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의 구축과 대형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 · 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9

제안이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이나 휴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간명성을 높임(제2조).
나. 야간 · 휴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야간 · 휴일 일차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시행계획의 적절성을 자문 ·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9조).

● 부산광역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시행 2020. 5. 27

제안이유

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 · 시행을 통해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시민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부산광역시민 영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제5조)
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
마. 시민의 인식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 보급하도록 함(제8조)
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한 식생활 조사 근거를 명시함(제9조)

●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정상적인 등원수업을 받지 못하고, 가정양육 영유아가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 바, 사회 ·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안 제5조)
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및 환수(안 제6조 및 제7조)

●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3. 3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6. 1.

제안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 ·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원계획: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가출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보호 ·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보호 및 생활지원,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NEW PAPER

동양일보

2020년 06월 23일
05면 (종합)

(왼쪽부터) 유철규 의원과 이영세 부의장, 임채성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 3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22일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과 유철규·임채성 의원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8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이 권역별로 개최됨에 따라 이날 충청권역 4개 광역시·도의회는 대전시의회 주관으로 공동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영세 부의장과 유철규·임채성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 민주주의 기반 확립과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영세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각종 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유철규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활발한 견제활동 △의회운영 및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임채성 의원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세종시의 안전과 교육 개선에 기여 △행정수도완성 및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세종 신서희 기자

(17.7*10.5)cm

[동양일보] 세종시의회 의원 3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종합 05면(2020.06.23)

大田日報

2020년 06월 25일
05면 (종합)

세종시 공공시설물 관리제도 손봐야

유지관리비 막대한 예산 소모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부터 이관받을 예정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이관 후 늘어날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 시킬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24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도로·공원·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389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공공특위는 지난 23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시설물 조사를 완료했으며, 지적사항 중 272건이 조치됐고 나머지 72건은 조치 예정·조치 미반영은 45건이라고 파악했다.

설계상 관리가 이미 진행돼 바꾸는 데 큰 비용이 투입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미반영 됐다. 특위는 주로 2-1·2-2, 3-1·3-2·3-3 생활권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보람동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을 돌며 근린공원·BRT도로 등을 점검했다.

공공특위는 행복도시건설 계획에 따라 시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인수 받는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구성·운영됐다. 2030년까지 확정된 인수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로 내년까지는 공공건축물 4개, 광역도로 1개, 공공시설 10개를 인수받는다.

현재 행복청과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시로 이관되고 있어 운영과 관리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건설 과정에서 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아 향후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특위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 예상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 부담 등이 검토돼야 하며, 시설물 설계단계부터 시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물 인수 이후 하자 처리를 위해 협의서 작성 등 이행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계 당시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지어지면 추후 시설물을 이관 받을 시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다. 또 지적 사항 조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시로 이관된 이후 조치 주체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 시설물 관리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공공특위 관계자는 "시설물이 시로 이관된 이후 막대한 관리비가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주도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 만큼, 어느 정도 국가부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각 시설물 관리 조치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관리 협의서 등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전재상 기자

(17.1*11.7)cm

[대전일보] 세종시 공공시설물 관리제도 손봐야
종합 05면(2020.06.25)

대전투데이

2020년 06월 24일
02면 (정치)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 마무리

20개월간 특위 활동 마무리하는 제5차 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22일 오전 11시 20개월간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위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20개월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중점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꼽았으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은 사업 추진의 적기로 보고 민·관·정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성수 의원은 "최근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세종시법·행복도시법·법원설치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법원 행정처 등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세종시법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평석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책들에 그간 정치권의 대립과 미온적인 태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뤄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21대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국회 의장단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홍성국 국회의원을 필두로 3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행정수도를 목표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행정수도 특위의 공식 활동은 종료됐으며,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는 23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세종=김태선기자

(16.0*17.7)cm

[대전투데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위 활동 마무리
정치 02면(2020.06.24)

중도일보

2020년 05월 07일
04면 (종합)

세종시의회, 행감 활용 제보 접수

20일까지… 익명은 제외

세종시의회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자체 홈페이지와 우편·팩스를 통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는다.

시민제보 대상으로는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 제보 등은 제외된다.

시의회는 제보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 유지와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부조리와 위법성, 부당성 등을 다각도로 조사·분석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파악과 현장 점검, 개선방안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금택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정례회인 만큼 지난해 주요 행정사항뿐 아니라 시민 안전과 보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회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11.5*9.1)cm

[중도일보] 세종시의회, 행감 활용 제보 접수
종합 04면(2020.05.07)

충남일보

2020년 07월 03일
01면 (종합)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태환

사상 첫 '30대 의장'

세종시의회가 1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제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이태환 의원(34세)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총 18표 중 17표를 득표한 이태환 의원이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태환 신임 의장은 세종시의회 사상 첫 '30대 의장'으로 역대 최연소다.

부의장으로는 노종용 의원과 이윤희 의원이 각각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에 당선됨에 따라 신임 의장단을 구성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 유철규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 박성수 의원이 교육안전위원장, 김원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세종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직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 특징은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노종용 제1부의장과 이윤희 제2부의장 등이 의장단에 선출돼 '젊은 의회'로 변모했다.

이태환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후반기 의정방향의 큰 틀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의 오는 8월 26일부터 15일간 후반기 첫 회기인 제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11.1×14.7)cm

[충남일보]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태환
종합 01면(2020.07.03)

충청신문

2020년 05월 25일
03면 (종합)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복위, 9043억 규모 추경 심사

수정예산 포함 기정액 대비 1573억 증액, 안건 4건 처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21~22일 양일간 1·2차 회의를 통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행복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 인력운영비 미반영분 등 필수경비 위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행복위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9억 22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8209억 3346만 3000원으로 편성됐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대비 834억 186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9043억 5209만 8000원으로 편성됐다.

심사를 통해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 등 6개 사업에서 1억 6804만 1000원을 감액, 노인의날 행사 등 3개 사업은 2500만원을 신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민등록 PC 추가 구입 등 5개 사업은 1억 3960만원을 증액했다.

또 1회 추경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예산 심의 결과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열리는 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세종/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11.2×19.7)cm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행복위, 9043억 규모 추경 심사
종합 03면(2020.05.25)

동양일보

2020년 06월 23일
04면 (종합)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본격 활동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학유치특위)'는 22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유치특위 상병헌 위원장을 비롯해 안찬영, 차성호, 이태환, 박성수 위원은 물론, 세종시청 김회산 기업지원과장과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대학유치특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회의, 현장방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활동 계획안을 채택했다.

이어 대학유치특위는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대학 유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 신서희 기자

(11.2×6.3)cm

[동양일보]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본격 활동
종합 04면(2020.06.23)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에 박성수 의원

부위원장에 손인수 의원 등 5명 체제 공식 활동 재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가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1일부터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1일 개최된 교육안전위 회의에서는 손인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2년 6월 31일까지 2년간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 안찬영·박철희·이순열 위원 총 5명 체제로 운영된다.

세종시 교육 및 안전 현안과 관련된 조례 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성수 신임 위원장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 현안을 철저하고 냉정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으로서 학생·학부모와 시민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인 시교육청과 시청과 함께 여럿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8월 26일부터 개최되는 제6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충청신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에 박성수 의원
종합 03면(2020.07.02)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2020년 3분기 세종시의회 회기 안내

2020 08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31	25	26	27	28	29

✻ 8.15(토) 광복절

2020 0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제64회 임시회 (15일간)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

✻ 9.30(수)~10.4(일) 추석연휴 5일간

2020 10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65회 임시회 (9일간)

– 2020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 10.3(토) 개천절 10.9(수) 한글날

✻ 기본 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담당부서 의사기록담당 300-7272)

◯ 본회의 날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세종의회소식〉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싣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내 내외

보내실 곳
우편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담당자 박천국)
전화 | 044.300.7248 팩스 | 044.300.7219 이메일 |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y.sejong.go.kr

2020 통권 제26호
세종의회소식
세종 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 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